

第2代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第2代 開院式 會議錄

開院式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7月12日(水) 14시 02분 開式

第2代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開院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 敬禮
3. 愛國歌 齊唱
4. 殉國先烈 및 戰沒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5. 開會辭
6. 祝 辭
7. 閉 式

(司會 事務局長 李普揆)

(14時02分 開式)

○事務局長 李普揆 지금부터 제2대 鍾路區議會
開院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녹음된 전
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沒護國勇士에 대한 默
念이 있습니다.

(一同 默念)

다음은 議員宣誓가 있습니다. 議員 여러분께
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왼손에 드시고 오른
손을 들어 議長님의 선창에 따라 宣誓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은 議員 본인의 각자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憲中 의원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할테니까 전부 손을 드시고 맨 마지막의
호명은 자기 성명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本議員은 法令을 준수하고 鍾路區民의 權益과
복리를 증진하며 종로구정의 건전한 發展을 위
하여 議員의 職務를 성실히 遂行할 것을 鍾路區
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1995年 7月 12日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

安 哲 柱	李 炳 文	吳 錦 南
千 相 旭	玄 壽 漢	玄 孝 善
沈 載 得	李 萬 魯	鄭 泰 淳
李 炯 述	洪 承 台	羅 在 岩
丁 昌 熙	朴 鍾 植	朴 文 培
洪 起 瑞	康 來 奎	金 以 煥
金 憲 中	金 正 大	宣 相 善

○事務局長 李普揆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金憲中 鍾路區議會 議長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憲中 존경하는 鄭興鎮 鍾路區廳長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議員 여러분!
이 자리는 그간 議員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우리 鍾路區民의 열렬한 지지속에서 이루어질
區議會이기에 종로구민은 물론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큼니다. 본인은 이 엄숙한 자리에 종로구
의회 議長으로서 개회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 죄송한 마
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議員 여려
분! 우리가 무엇때문에 지방자치제를 갈망하였
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관치행
정 체제하에 길들여 살아오면서 우리 지역의 문
제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관심과 방관으

로 일관하여 왔으며 모든 일을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議員 여러분이나 종로구민 여러분이 인식을 달리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은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주민 자신이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행정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우리 고장의 사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議員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그늘에 가려있는 주민들의 참다운 목소리를 우리 議員들이 겸허하게 경청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구민의 참여속에 파악하여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연구하는 다수 주민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議會를 운영하여야 하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구의회가 민의의 수렴장으로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구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려내는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과 議員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듣고 낮은 곳에서 보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事務局長 李普揆 이어서 鄭興鎮 鍾路區廳長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區廳長 鄭興鎮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金憲中 議長님, 洪承台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제2기 지방자치 시대를 활짝 열어갈 벅찬 감회속에 희망찬 첫발을 내딛는 종로구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議員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러우며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의회에 진출하신 議員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뜻깊은 제2대 종로구의회 개원과 함께 첫 등원하신 議員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이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의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희망찬 도약의 부푼 꿈을 안고 우리지역의 살림을 우리 구민이 잘 꾸려가야 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행이나 구태로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건설적인 변화와 개혁만이 밝은 장래와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종로구는 세간에서 말하는 허울좋은 명성에 비하여 도시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에서 매우 낙후되고 침체된 부분이 상당히 많으며 구정의 기본이 되는 재정 구조마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결만 화려했지 속은 비어있는 외화내빈의 사실을 직시하여 하루속히 옛 명성을 되찾고 떠나가는 종로가 아닌 다시 찾는 종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번 선거기간을 통하여 이제 우리 종로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건설을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많은 구민으로부터 격려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새로운 종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내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취약한 주택 주거환경의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규제와 통제를 완화하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여야 하겠으며 침체된 종로 일대의 유서깊은 상권을 부활하여 특색있는 세계적인 거리로 만들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주민의 인내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하는데 필요한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세원조사, 담배소비세, 유흥음식세 등의 구세 전환, 지역실정을 감안한 시 특별교부세 지원요구 등 가능한한 모든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고지대 등 생활이 어려운 지역의 서민과 노인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증설하고 청소년에 대한 독서문화, 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도 적극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종로가 정치 일변지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복지, 문화 등 생활면에 있어서도 첫계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구민의 편에서 겸허히 듣고 철학과 비전이 있는 소신 행정을 펼침으로써 구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성공적인 자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종로는 언제나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존공영하는 동반자가 되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위대한 종로, 살기좋은 종로를 기필코 만들어 나갈

것을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들께 굳은 약속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
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의원 여러분
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도편달에 귀를 기울이는
구청장이 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
로구의회가 정치 일변지답게 의정활동을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이끌어 구민으로부터 두
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신선한 출발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다
시 한 번 제2대 종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의회와 무궁한 발전과 議員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축원하면서 개원 인사에 갈
음합니다. 감사합니다.

○事務局長 李普揆 이상으로 제2대 鍾路區議會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時 19分 閉式)

○出席議員 21名

安 哲 柱	李 炳 文	吳 錦 南
千 相 旭	玄 壽 漢	玄 孝 善
沈 載 得	李 萬 魯	鄭 泰 淳
李 炯 述	洪 承 台	羅 在 岩
丁 昌 熙	朴 鍾 植	朴 文 培
洪 起 瑞	康 來 奎	金 以 煥
金 憲 中	金 正 大	宣 相 善

○關係公務員

區廳長 鄭興鎮
總務局長 洪起和
財務局長 吳炳漢
市民局長 金賢植
都市整備局長 趙學來
建設局長 吳鍾錫
保健所長 李星世

